



2면

"국난 극복 최우선 과제 국회가 입법 뒷받침해달라"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음 5월 27일) 제25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매일

## '전주형 뉴딜' 포스트 코로나 주도

## 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

### 비대면·친환경 산업 육성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경제총괄자문관 확대·뉴딜사업추진단 구성키로 경제비전 수립·미래 전주 경제정책 방향도 설계

포스트코로나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주시가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비대면 산업 육성과 친환경 산업 육성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계획을 보다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수소중심 미래산업) △창업·일자리인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의 4개 분야에 걸쳐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형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총괄 자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뉴딜사업 추진단과 경제비전추진단 등을 구성해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제총괄 자문관의 경우, 시는 기존 기업지원 분야와 일자리·고용 분야 전문가 2명에 금융 분야 전문가를 추가한 3명으로 확대해서 향후 추진될 각 분야별 전주형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형 뉴딜사업 발굴과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뉴딜사업추진단(TF)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할 전주만의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주를 이끌어갈 전주경제 방향도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인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경제비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주경제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전인 지난 1일 민선7기 후반기 시정운영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적인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J-디

지탈 교육밸리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으며, 전주형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미래형 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 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 생활까지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데이터 기반이 핵심적으로 중요해졌다"면서 "전주가 가장 먼저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고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도, 7건 선정·건설팅... 행안부 경진대회 맞춰 지속 보완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 사례 7건을 16일 선정하고, 건설팅을 실시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는 ▲진안군 '배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림보호 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사례와 ▲부안군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사례가 선정되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 분야에는 ▲전북도 봉성의 '연구개발특구 입주제한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소재산업 지속 성장 견인' 사례와 ▲익산시의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완주군의 '산업단지 규제 신속 개선으로 전북호수소총연소 구축' 사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 불편 해결 분야에서는 ▲남원시의 '이기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 - '특고세 지침변경승인'으로 아이맘누리센터 건립' 사례와 ▲순창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체계

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후 장기화된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마련' 사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심사 기준에 맞춰 건설팅이 이어졌으며, 건설팅을 통한 보완 후에,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전북도 예비심사는 9월 예정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될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은 전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이지훈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심사를 맡았다.

결집률을 다짐돌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된 사례 3개 분야 10건을 대상으로 창의성(30점)과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확산 가능성(10점)을 심사해 7건을 선정했다.

이진도 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로 무거워진 민생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초복 점심에 삼계탕집 물린 시민들'

24절기 중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이한 16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신동에 위치한 한 삼계탕집 입구가 줄 선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전북도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볼 '성 주류화 확산 추진단'이 출범한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소장 이수인)는 16일 오후 2시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2020 전북 성 주류화 확산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전북 성 주류화 확산 추진단은 도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도민모니터링단이다.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라북도 정책 및 성 평등 확산에 관심 있

## 성인지 정책 시민 체감도 높인다

### 전북도 '성 주류화 확산 추진단' 출범

는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북도민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성 주류화 확산 추진단'은 전북도 성 주류화 정책의 대표 제도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의 연계 및 환류, 점검을 위해 전북도청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모니터링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민 참여 정책모니터링을

영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의 정책개선안을 점검하고 사업 현장의 요구를 피드백해서 민관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모니터링단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성 주류화 정책과 성인지적 모니터링'의 이해, '현장 모니터링의 주안점' 등을 주제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

한다. 모니터링단은 10월까지 직접 정책현장에 나가 모니터링 활동을 펼친 후 오는 12월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확산 추진단 발족을 통해 전라북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정책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전북지역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힘을껏"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새만금 그림그리기 공모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새만금을 직접 디자인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5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해물야! 새만금으로 놀러가자', '새만금

놀이동산'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18일 까지 진행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미취학 어린이 포함)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 접수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spc.or.kr/saemangeum/green2020)을 통한 온라인 참가접수 후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를 병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 1명(교육부총리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3명(새만금개발청장상, 상금 각 50만 원), 우수상 8명(전라북도지사상, 상금 각 3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469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11월 초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과 별개로 오는 8월 21일 까지 사진과 함께 접수한 참가자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 온라인으로는 공모전 소문내기, 엘리버드 접수전시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가족, 친구들과 새만금을 방문한 사진을 접수한 경우 심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새만금 방문인증 사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유호상기자

# 제14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7월 18일(토) 오후3시30분  
전주풍남문화광장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후원 : 전라북도, 한국문화예술진흥회






